

못자리

5월

제 1712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이번 달에 떠나볼 곳은 '대전교구' 성지들이에요.

'갈매못 성지'- 다블뤼 주교를 비롯하여 다섯 성인과
이름 모를 교우들이 순교한 곳.

'솔미성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생가와 동상을 볼 수 있으며,
2014년 아시아 청년대회 때 교황이 방문한 곳.

'다락골 성지'-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탄생지로
'다락골 줄무덤 성지'라고도 부름.

자, 그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탄생지가 있는
'대전교구'로 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5월 4일 부활 제3주일 <요한 21,1-14>

그때에 1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2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4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7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겹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 들었다. 8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9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1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11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14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이요람 요람

안동교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건강히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글을 쓰며, 정말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이 어릴 적 다녔던 후포성당의 카페에 방문해 보았네요.
많지 않은 사진 틈에서 발견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소년의 모습!
'흘러간 시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싶었지 뭐예요.
아름다운 오늘을! 지금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정상동성당 6학년 신아현 아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킨대로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 감고 다시 떠올리자 저도 은총을 받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이 엄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십니까?'하고 묻지 않았지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부럽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동성당 6학년 신아현 아셀라

오늘의 복음

5월 11일 부활 제4주일 <요한 10,27-3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답3 퀴즈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명사 3개를 적어보아요.

--	--	--

퍼즐

가로세로

어	감	창	조	탄	개	나	리	봄	꽃
린	버	사	죄	성	등	불	그	물	소
이	유	이	랑	그	모	천	사	거	증
행	락	어	부	통	림	성	심	운	움
운	복	주	머	니	고	리	월	영	동
평	산	란	청	년	기	원	지	화	합
화	심	비	오	리	난	심	분	목	동
가	아	리	머	애	근	생	색	자	뽕
미	사	두	환	성	통	성	명	기	다
로	우	산	란	일	갈	릴	레	아	유

1. ○○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요한 21,6>
-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얹은 물건.
2.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을 준다. <요한 10,28>
-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3.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여라. <요한 13,34>
-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4. 나는 너희에게○○를 남기고 간다. 내 ○○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27>
- 평온하고 화목함.
5. 너희 마음이 ○○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 14,27>
-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오늘의 복음

5월 16일 부활 제5주일 <요한 13,31-33 13,34-35>

방에서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달의 생활성가

큰 계명



@종저 유튜브 - 가톨릭 신문

5월에는 PAX의 '큰 계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지내보도록 해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점촌동 성당 4학년 조윤아 도로서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끔 말 잘 안듣는 저에게 엄마는 예쁘게
 말을 해요. 그게 사랑 같아요. 앞으로는 저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더 예쁘게 말하고 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죠?
 이런 사랑 실천 다짐을 하고 나니
 오늘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행복한 날이네요.♡



★점촌동 성당 3학년 이효주 아네스

오늘의 복음

5월 25일 부활 제6주일 <요한 14,23-2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3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24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26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28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29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도시

엠마오(Emmaus)

-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약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라고 루카 복음에 소개됨 (루카 24,13)
- 온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맛(חמט)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불확실함.
- 엠마오로 추정되는 도시 중 아브고쉬(Abu Ghosh)와 엠마우스 니코폴리스(Emmaus Nicopolis)가 자주 언급됨.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그림 찾으세요.





<1주간> : 부활 제3주일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사해 ② 티베리아스 ③ 석촌 ④ 바이칼

2.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 하셨나요?

- ① 앞 ② 뒤 ③ 오른쪽 ④ 왼

<2주간> : 부활 제4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 ① 내 ()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② 나는 그들을 () 그들은 나를 ().
③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을 준다.

2. 다음 중 복음에 나온 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예수님의 양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② 아무도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③ 아무도 예수님의 양들을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④ 아버지와 나(예수님)는 언제나 같이 있다.

못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부활 제5주일

1. 다음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적어보아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스럽게 하실 것이다.

2. 오늘 복음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주간> : 부활 제6주일

1. 다음 중 오늘 복음에 나오는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고르세요.

- 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 ② 내 아버지께서 그를 믿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 ③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 ④ 너희가 믿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 오늘 복음을 읽고 O, X를 고르세요.

- 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O/X)
- ②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다. (O/X)
- ③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O/X)
- ④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O/X)

당첨자

3월 09일 정답자

용상동 지민준

3월 16일 정답자

송현동 박서아 김준희

3월 23일 정답자

개운동 김아린 김영광

3월 30일 정답자

목성동 김아인 김준서

4월 06일 정답자

갈전 마티아 이로아



알림판

◆ 6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6월 1일 : 용상동 성당
- 6월 15일 : 가흥동 성당

(※ 원고는 5월 6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최양업 신부님 그림과 글 공모

- 최양업 신부님 생애가 궁금하시다면? →

(※ 그림과 글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유튜브 다큐길
한국인 최양업_사랑으로 길을 걷다